



**발행처** KOIMA 국제원자재정보센터  
**엄준호** 자문위원 (現 경국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두원** 자문위원 (現 충북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교수)  
**문 의** 02)6677-1311 / koimaindex@koima.kr

2024년 • 통권 40호

11월

\*자세한 정보는 **KOIMA**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가격정보 ([www.koimaindex.com](http://www.koimaindex.com))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OIMA  
지수



## 2024년 9월 KOIMA 지수 280.92 ( $\nabla 2.31\%$ ) 전반적인 수요 둔화와 경기 부진으로 하락

- 11월 KOIMA 지수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하락 전망
  - 12월에도 수요 부진이 계속되어 약세 예상

농산물  
광산품

- ▶ 커피,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소비 급증으로 상승
  - ▶ 유연탄, 계절성 수요 둔화와 美, 中 경기 부진 우려로 하락

유무기원료  
유화원료

- ▶ 고지, 관련 산업의 경기 부진과 공급 강세로 하락
  - ▶ 파라자일렌, 유가 하락, 시황 악화, 수요 약세로 하락

# 섬유원료 철강재

- ▶ 카프로락탐,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가 늘어 상승
  - ▶ H형강,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수요가 줄어 하락

비철금속  
희소금속

- ▶ 알루미늄스크랩, 美 정부의 핵심 광물 비축 공약으로 상승
  - ▶ EITI는 하고으즈 미 반이사언이 스오 가스르 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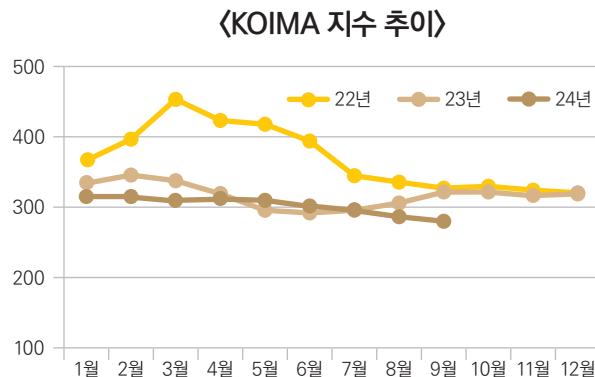


## 지수동향

KOIMA 지수, 전월보다 하락

## 9월 원자재가격, 전반적인 수요약세로 전월보다 하락

- 9월에는 광산품, 유화원료 등 4개 부문에서 하락, 농산품, 유무기원료 4개 부문에서 상승했음
- 광산품이 전반적인 수요 둔화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음



## 고지, 파라자일렌은 하락, 카프로락탐, 천연고무는 상승

- 주요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지가 관련 산업의 경기침체와 수요 부진으로 인해 11.63% 하락했고, 파라자일렌은 시황 악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음
- 반면 카프로락탐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고, 천연고무는 세계 각국의 EUDR(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대비 수요로 인해 강세를 보였음

## 〈10월 주요 상승·하락 품목〉

상승품목		하락품목	
품목	가격(전월 대비)	품목	가격(전월 대비)
카프로락탐	2,100 \$/MT(13.51%)	고지	190 \$/MT (-11.63%)
천연고무	2,752.86 \$/MT(10.83%)	파라자일렌	851.14 \$/MT (-11.21%)
커피	6,197 \$/MT(6.71%)	알루미늄	2,555.93 \$/MT (-10.52%)
알루미늄스크랩	2,229 \$/MT(6.04%)	유연탄	186 \$/MT (-9.27%)
쇠고기	7.5 \$/MT(5.63%)	티타늄	43,750 \$/MT (-7.46%)

주: 상승 및 하락폭이 큰 순서로 5개 품목 선정

## 03

### 광산품 경기축소, 수요 약세로 하락, 농산품 공급 부진으로 상승

- 9월 원자재 수입 가격 조사 결과, 유연탄 수요가 하절기를 지나면서 중국의 냉방용 발전 수요가 줄었고,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각 품목의 산업 수요가 줄면서 광산품의 가격이 하락 했음
- 반면 농산품은 주산지의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쇠고기의 생산량까지 줄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진하였고, 소비세는 품목에 따라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음

〈부문별 KOIMA 지수 동향〉

(각 부문별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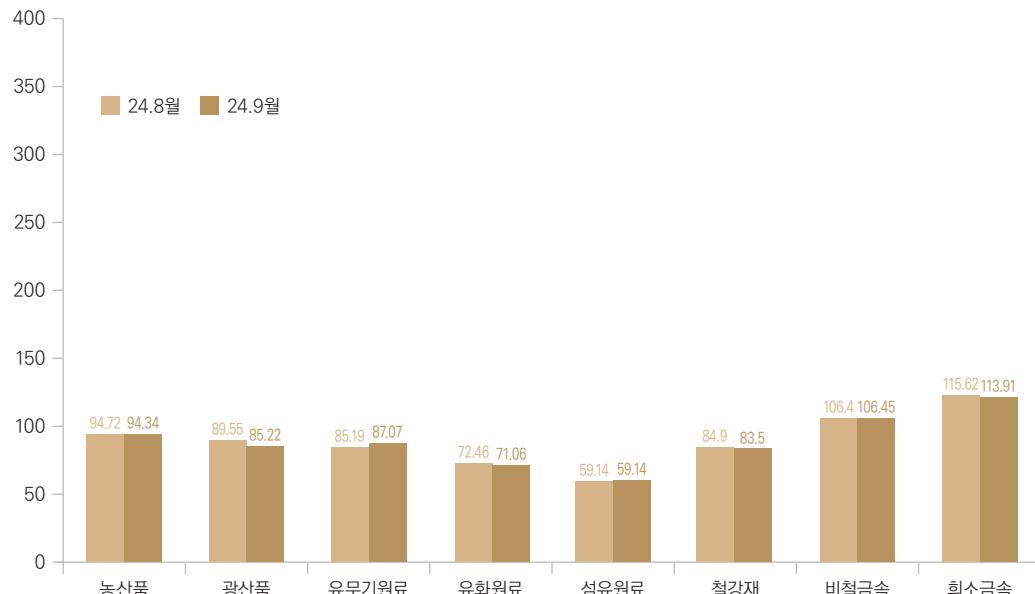
	농산품	광산품	유무기원료	유화원료	섬유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희소금속
'24 8월	91.32 (▽0.33%)	89.55 (▽7.88%)	85.19 (△1.45%)	72.46 (▽1.29%)	59.14 (△0.82%)	84.9 (▽2.95%)	106.4 (▽0.24%)	115.62 (▽6.84%)
'24 9월	94.34 (▽3.31%)	85.22 (▽4.84%)	87.07 (△2.21%)	71.06 (▽1.93%)	60.07 (△1.57%)	83.5 (▽1.65%)	106.45 (▽0.05%)	113.91 (▽1.48%)

주: 수입비중, 수입의존도, 경제적 분석, 종합분석 기준에 의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수와 품목별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

자료: 당 협회 작성

〈부문별 전월대비 KOIMA 지수〉

(2010년 12월: 100)



주: 수입비중, 수입의존도, 경제적 분석, 종합분석 기준에 의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수와 품목별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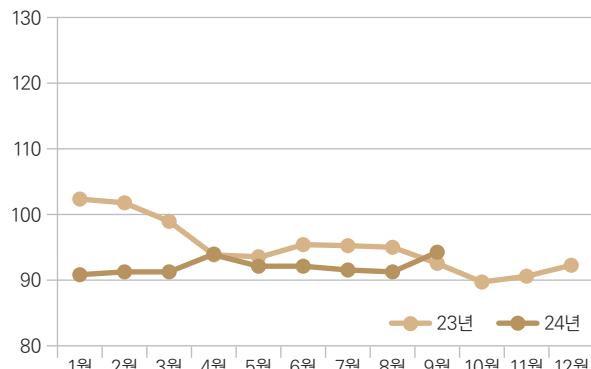
# 품목동향 ①

## 농산품, 전월 대비 상승

### 커피 가격 상승, 원당 가격은 하락

〈농산품 지수 추이〉

- ▶ 커피는 주산지의 작황이 평년 수준인 가운데, 전 세계적인 수요 상승의 여파와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소비 급증으로 인해 8월에 비해 6.17% 상승했음
- ▶ 쇠고기는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 5.63% 상승했음
- ▶ 한편 원당은 북반구 생산지의 전년 대비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 공급이 늘어 3.57% 하락했음



〈농산품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변동률(%)		
					2023.9	2024.8	2024.9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옥수수	#3(사료용)	M/T	CFR	미국, 남미	260	240	245	△2.08	▽5.77	
밀(백맥)	No.2 or better	M/T	CFR	미국	274	243	251	△3.29	▽8.39	
원당	98%이상	M/T	CFR	태국	625.7	537.83	518.61	▽3.57	▽17.12	
커피	Arabica	M/T	FOB	브라질	3714	5837	6197	△6.17	△66.86	
쇠고기	냉동	kg	CFR	호주	6.7	7.1	7.5	△5.63	△11.94	
대두	#2	M/T	CFR	미국, 브라질	613.78	493.24	518.44	△5.11	▽15.53	
당밀	Brix75%이상	M/T	CFR	태국	243.23	231.18	233.84	△1.15	▽3.86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농산품 국제가격, 다소 하락 전망

- ▶ 11월 농산품 국제가격은 주요 곡물 산지인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안정적 생산 전망에 따라 밀, 대두 등의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 등락이 있겠으며 옥수수의 경우 공급 대비 높은 수요에 의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커피의 경우에도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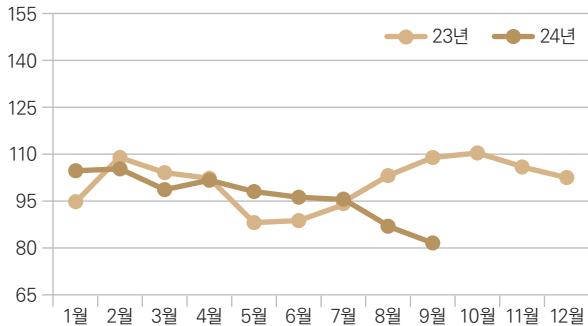
### 유연탄 가격 하락, 은 가격은 상승

▶ 유연탄은 계절성 수요둔화 및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로 인해 8월에 비해 9.2% 하락했음

▶ 철광석은 중국의 제조업,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및 증산 전망으로 인해 6.25% 하락했음

▶ 반면 은의 경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 5.3% 올랐음

〈광산품 지수 추이〉



〈광산품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원유	API 31	BBL	FOB	중동	93.25	77.27	73.52	▽4.85	▽39.12
유연탄	WMT	M/T	FOB	호주	305.53	205.01	92.74	▽9.27	▽19.98
철광석	62~64%	M/T	FOB	호주	115.9	98.93	959.88	▽6.25	△4.02
백금	99.95%	OZ	EXW	남아공	922.76	945.24	2566.89	△1.55	△33.9
금	4/9	OZ	EXW	호주, 홍콩	1916.96	2471.84	30.01	△3.85	△29.13
은	4/9	OZ	EXW	일본, 미국	23.24	28.5	28.5	△5.3	△21.59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광산품 국제가격, 다소 하락 전망

▶ 11월의 광산품 국제가격은 중동의 긴장 심화 완화 및 중국의 예상보다 낮은 경제 개선 전망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석유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경제의 부진과 예상보다 낮은 수요 전망은 철광석, 석탄 등 광산품의 가격 또한 다소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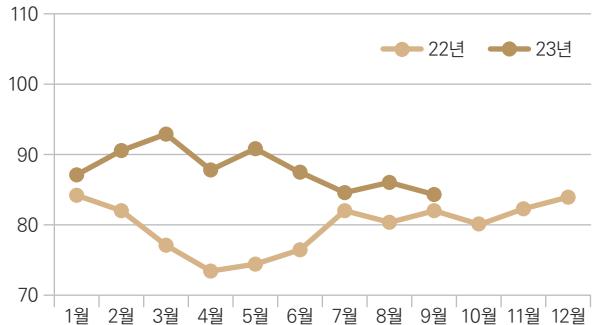
# 품목동향 ③

## 유무기원료, 전월 대비 상승

### 천연고무 가격 상승, 고지 가격은 하락

〈유무기원료 지수 추이〉

- 천연고무는 주산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호우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였고, 세계 각국의 EUDR 준비로 인해 수요가 늘어 8월에 비해 10.83% 올랐음
- 팜올레인 또한 주요 산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5.32% 올랐음
- 반면 고지는 전반적인 관련 산업의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수요가 줄어 11.63% 하락했음



〈유무기원료 가격 동향〉

(단위:US\$; 올리브유: EUR)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천연고무	RSS #3	M/T	FOB	태국	1,638.33	2,483.75	2,752.86	△10.83	△68.03
고지	OCC	M/T	CIF	미국	175	215	190	▽11.63	△8.57
펄프	BKP HARD	M/T	CIF	브라질	675	705	690	▽2.13	△2.22
대두유	CSBO	M/T	CFR	아르헨티나	1,112.41	1,050	1,078	△2.67	▽3.09
팜유	RBD Olein	M/T	FOB	말레이시아	841.32	996	1049	△5.32	△24.69
소가죽(원피)	62/64lbs	lb	CIF	미국	0.66	0.56	0.56	-	▽15.15
올리브유	EXTRA VIRGIN	M/T	CIF	스페인	9,000	7,000	7,100	△1.43	▽21.11
소금	Sodium Chloride(96%)	M/T	CFR	호주	130	130	130	-	-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유무기원료 국제가격, 다소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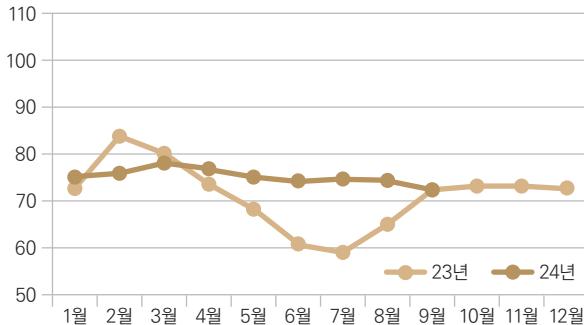
- 11월의 유무기원료 가격은 예상보다 저조한 글로벌 산업 및 중국의 산업 수요 전망에 따라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등락이 있겠으며 팜유의 경우 공급보다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무와 대두유의 경우 산업 수요 저조 전망과 대두 가격 하락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파라자일렌 가격 가격 하락, 부탄 가격은 상승

### 〈유화원료 지수 추이〉

▶ 파라자일렌은 유가 하락, 전반적인 시황 악화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종료에 따른 수요 하락으로 8월에 비해 11.21% 하락했음

▶ 스티렌 또한 한국의 수요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5.22% 하락했음



▶ 반면 부탄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공급이 감소해 4.39% 올랐음

### 〈유화원료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프로판	C3	M/T	FOB	중동	550	590	605	△2.54	△10
나프타	공업용	M/T	CFR	중동	679.87	662.99	641.53	▽3.24	▽5.64
파라자일렌	99.7% min	M/T	CFR	중동	1,125.06	958.59	851.14	▽11.21	▽24.35
메탄올	99.85%	M/T	CFR	중동	300	342.5	341.25	▽-0.36	△13.75
부탄	C4	M/T	FOB	중동	560	570	595	△4.39	△6.25
프로필렌	99.4%이상	M/T	CFR	일본	807.62	852	833	▽2.23	△3.14
스티렌	99.9%	M/T	CFR	중국	1,096	1,150	1,090	▽5.22	▽0.55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유화원료 국제가격, 다소 하락 전망

▶ 11월의 유화원료 가격은 중동 긴장 완화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를 원료로 하는 프로판, 나프타, 에틸렌 등의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 등락이 있겠으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 에너지 수요의 증대 전망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농산품, 광산품, 유무기원료, 유화원료 품목 자문: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최두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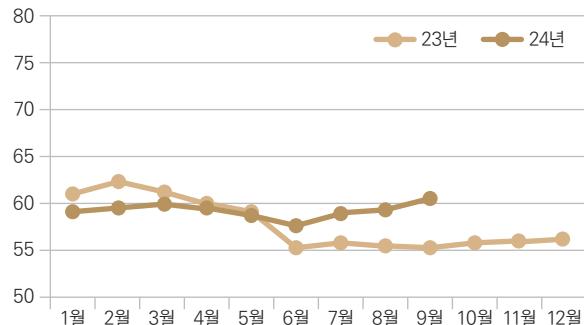
## 품목동향 ⑤

### 섬유원료, 전월 대비 상승

#### 카프로락탐 가격 상승, 에틸렌글리콜 가격은 하락

- ▶ 카프로락탐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었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면서 8월에 비해 13.51% 올랐음
- ▶ 아크릴로니트릴은 비료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보합세를 보였음
- ▶ 한편 에틸렌글리콜은 산업 부문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2.48% 하락했음

〈섬유원료 지수 추이〉



〈섬유원료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테르용	M/T	CFR	사우디	477.6	548.4	534.8	▽2.48	△11.98
원면	SM	lb	CFR	미국	0.92	0.83	0.82	▽1.2	▽10.87
아크릴로니트릴	99.5%	M/T	CFR	미국, 일본	1,225	1,405	1,405	-	△14.69
카프로락탐	합섬원료	M/T	CFR	유럽	1,650	1,850	2,100	△13.51	△27.27
양모	66S	lb	CIF	호주	4.77	4.89	4.85	▽0.82	△1.68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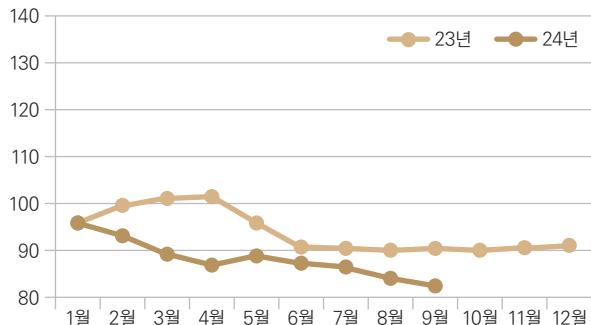
#### 11월 섬유원료 국제가격, 다소 하락 전망

- ▶ 11월 섬유원료의 가격은 공급 대비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유가 하락이나 달러 강세로 가격의 변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경기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 장기적인 하락세가 전망됨

## H형강 가격 하락, 철근 가격은 상승

- H형강은 고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8월에 비해 5.68% 하락했음
- 철스크랩(고철)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4.23% 하락했음
- 반면 철근은 산업 수요 부진에도 철광석, 코크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원가가 상승해 3.39% 올랐음

〈철강재 지수 추이〉



〈철강재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슬랩	강판용	M/T	CFR	일본, 브라질	671.67	610	610	-	▽9.18
핫코일	2.0mm~4.5mm	M/T	CFR	중국	560.89	477.99	470.79	▽1.51	▽16.06
철스크랩 (고철)	HMS No.1	M/T	CIF	미국	400	378	362	▽4.23	▽9.5
빌릿	압연용	M/T	CFR	필리핀	512.5	469	463	▽1.28	▽9.66
선철	제강용	M/T	CFR	러시아, 브라질, 인도	482.5	524.38	507.75	▽3.17	△5.23
H형강	SS400	M/T	CFR	중국	527	472	445.2	▽5.68	▽15.52
철근	10mm,13mm	M/T	CFR	일본	521	443	458	△3.39	▽12.09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철강재 국제가격, 다소 보합 전망

- 11월의 철강재 가격은 글로벌 제조 경기의 정체와 수요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은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품목별로 원자재 가격의 증가나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상쇄 효과가 어느 정도 전망됨. 단일 수입국에 의존성이 높은 품목에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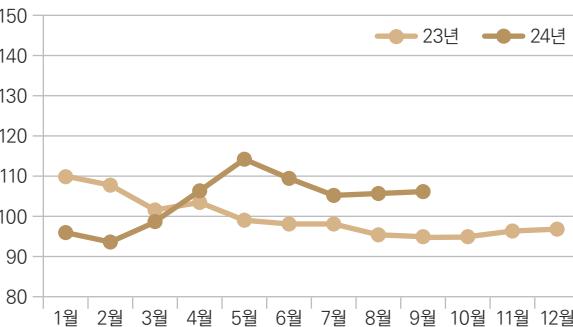
## 품목동향 ⑦

비철금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알루미늄 스크랩은 상승, 알루미늄은 하락

## 〈비철금속 지수 추이〉

- ▶ 알루미늄 스크랩은 미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투입되는 핵심 광물을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 6.04% 올랐음
- ▶ 아연은 정광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진해 3.86% 올랐음
- ▶ 반면 알루미늄은 중국의 건설 경기 위축과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해 10.52% 하락했음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기동(구리)	99.99%	M/T	CIF	칠레	8,363.29	9,139.05	9,443.1	△3.33	△12.91
알루미늄	99.70%	M/T	CIF	호주, 중동	2,304.31	2,856.36	2,555.93	▽10.52	△10.92
동스크랩	Mill berry	M/T	CIF	중동, 미국	7,999.44	8,780.82	9,049.26	△3.06	△13.12
알루미늄스크랩	Tense	M/T	CIF	미국, 호주	1,979	2,102	2,229	△6.04	△12.64
아연	99.995%	M/T	CIF	인도	2,728	2,987.36	3,102.67	△3.86	△13.73
주석	99.85%	M/T	CIF	말레이시아	26,267.14	32,198.8	30,905.5	▽4.02	△17.66
니켈	99.8%	M/T	CIF	호주, 캐나다	20,032.62	16,690.5	16,559.8	▽0.78	▽17.34
연(납)	99.97%	M/T	CIF	인도	2,345.6	2,171.38	2,175.21	△0.18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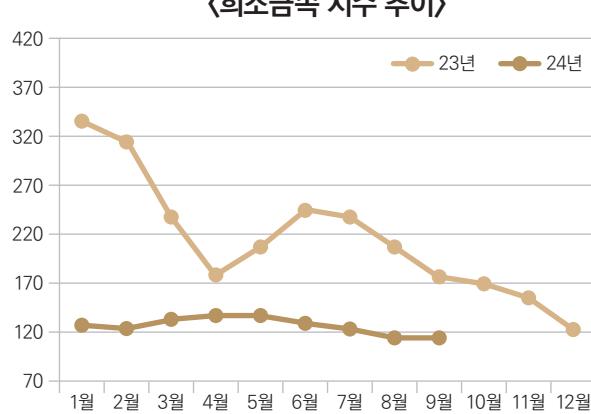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1월 비철금속 국제가격, 보합 전망

- ▶ 11월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보다는 공급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며 공급의 불확실성이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을 이끌 수 있으나, 수요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주석과 알루미늄의 가격 변동에 주의를 요함

## 티타늄 가격 하락, 몰리브덴 가격은 상승

- ▶ 티타늄은 항공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해 8월에 비해 7.46% 하락 했음
- ▶ 실리콘은 건설 및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철강 수요와 더불어 페로실리콘의 수요가 줄면서 2.48% 하락했음
- ▶ 반면 몰리브덴은 전자, 항공우주,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수요가 늘어 1.03% 상승했음



## 〈희소금속 가격 동향〉

(단위: US\$)

품목명	규격	단위	조건	수입국	2023.9	2024.8	2024.9	변동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몰리브덴	Fe60%	M/T	FOB	중국, 칠레	52,347.70	45,100.04	45,564.92	△1.03	▽12.96
코발트	99.80%	M/T	FOB	미국	37,368.31	34,722.77	34,303.9	▽1.21	▽8.2
리튬	99%	kg	EXW	중국	173.61	72.07	70.55	▽2.11	▽59.36
바나듐	80%	M/T	FOB	미국	29,906	25,350	25,205	▽0.57	▽15.72
마그네슘	99.99%	M/T	FOB	중국, 일본	3,470	2,602.78	2,623.75	△0.81	▽24.39
티타늄	99.7%	M/T	EXW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53,375	47,277.78	43,750	▽7.46	▽18.03
실리콘	Fe75%	M/T	FOB	일본	1,388	1,328	1,295	▽2.48	▽6.7

자료: 기업 구매담당 부서 조사, 국제거래소 가격 참고

## 10월 희소금속 국제가격, 보합 전망

- ▶ 10월 희소금속 가격은 전반적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리튬은 해당국의 공급 안전성으로 가격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국가에 의존성이 높은 희소 금속은 주의를 요하며 혜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섬유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희소금속 품목 자문: 英 Essex University Business School 엄준호 교수〉

# KOIMA 지수

## KOIMA 지수 개요

-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 수입국으로서 국내 생산 활동의 중간 투입재로 이용되는 국제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환경이므로 전반적인 수입 원자재의 가격 흐름을 보다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수로 산출하고자 함

## KOIMA 지수 주요 구성

- 국내로 수입되는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원자재 중 물가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구성: 농산품부문(7개 품목), 광산품부문(6개 품목), 유무기원료부문(8개 품목), 유화원료부문(7개 품목), 섬유원료 부문(5개 품목), 철강재부문(7개 품목), 비철금속부문(8개 품목), 희소금속부문(7개 품목)

## KOIMA 지수 산출방식

- 수입 비중, 수입의존도, 경제적 분석, 종합분석 기준에 의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수와 품목별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

## KOIMA 지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원자재 수입가격 정보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가격 등락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가격 비교를 활용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 정부로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비축물량의 방출, 수요관리, 할당관세의 적용 등 정책적 판단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국제 원자재 품목의 수입가격 정보는 수입 원자재의 유통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힘으로써 중소기업의 원자재 국내 수요 시 가격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수입협회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를 이용한 판단 및 행위 결과에 대하여는 협회[협회에게 정보를 제공한 제3자(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도 포함된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